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이 음악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Music Attitude and Emotional Leadership on Music Teaching Efficacy

이미숙¹ 조성연²

Misook Lee¹ Songyon Cho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music attitude and emotional leadership on their music teaching efficacy in the music education.

Methods: 301 early childhood teachers answered the music attitude scale, music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emotional leadership scale, and questionnaire f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usic experiences.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Pearson's productive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irst, early childhood teachers had a higher music teaching efficacy in case of at least 10 years of teaching experiences period, having a post-graduate degree, having a music training experience, enjoying learning musical instruments and singing and listening to music during regular music lessons, and having a long music training experience. Similar results were derived from the sub-factors of music teaching efficacy. Second,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r = .172-.659, p < .001$) in the total and subfactors scores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music attitude, emotional leadership, and music teaching efficacy. Lastly, early childhood teachers' music attitude and their emotional leadership were explained at 39~52 percent for their music teaching efficacy.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their belief, knowledge and feeling about music education.

key words early childhood teacher, music teaching efficacy, music attitude, emotional leadership

* 본 논문은 2018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본 논문은 2017년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¹ 제1저자

해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²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e-mail : sycho@hoseo.edu)

I. 서론

음악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나 사고를 표현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언어능력이

미숙한 유아는 다양한 음악요소를 포함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유아교육이나 보육현장에서의 음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유아교사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을 위해 다양한 음악활동을 계획하여 실시함으로써 유아들의 음악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다양한 음악활동은 유아들의 정서적 측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음악교육은 유아의 정서발달에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 음악교육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업 계획에 의한 교수학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교과와 달리 유아교사들은 음악교육의 실시를 부담스러워한다(이희진, 2010). 음악교육은 악기 사용이나 음감, 악보 읽기 등과 같은 다양한 음악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음악활동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은영과 박찬옥(2005)도 음악활동은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 실시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지만 유아교사가 현장에서 사전 훈련 없이 음악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하였다.

유아교육과 보육현장에서 유아교사가 음악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한 어려움으로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아교사의 음악과 음악교수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음악경험의 부족(박주연, 이민정, 2015; 방은영, 2008; Schriban, 2013), 음악교수 전략과 관련된 자료의 부족(송윤희, 2015), 음악이나 음악관련 교육에서의 불유쾌한 경험에 의한 음악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태도(백지혜, 2010; 양지애, 이영애, 2011), 직전교육의 부족과 음악에 대한 부정적 경험(Murphy & Brown, 1986)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아교사로 하여금 음악교육을 통해 영유아들의 즐거움과 흥미를 이끌어 내기 어렵게 하고 제한적이고 지엽적인 음악교육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음악교육 시 유아교사가 음악활동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신념이나 이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는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유아들과의 음악활동을 통해 그들의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켜주는데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악교육에서 음악활동과 관련한 이와 같은 개념이 음악교수효능감이다. 신금호(2013)는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유아교사는 음악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실시하는 음악교육을 통해 유아들의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지식과 교수방법 및 기술을 동원하여 유아의 흥미나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유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고 설명하였다.

음악교수효능감은 교사가 음악활동을 전개할 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음악활동 전개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방은영, 박찬옥, 2005). 또한 음악교수효능감은 유아교사가 자신이 유아들의 음악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정도로서 유아의 음악성 발달을 위한 지식, 교수방법과 상호작용 기술 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다(박진성, 문혁준, 2006). 이러한 음악교수효능감은 유아교사가 음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음악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음악활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포함한다(황인주, 김은정, 2015). 그러므로 음악교수효능감은 유아교사가 음악교육을 실시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유아교사는 음악활동의 교수·학습과정에서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Gibson & Dembo, 1984), 유아의 음악적 특성을 이해하고 음악활동에 필요한 자료

와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을 선행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음악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박주연, 2014). 그러나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을 경우에는 음악활동에 대한 유아교사 스스로 자신감이 결여되어 소극적인 음악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유아교사로 하여금 음악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 유아교육과 보육에서의 음악교육을 보다 수동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의 음악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음악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영석, 이경민 그리고 한석실(2001)은 유아교사는 모든 교과에 대해 동일한 교수효능감을 지닐 수 없으므로 교과마다 교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의 교수효능감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과 보육현장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음악교육과 관련한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유아 음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보육현장에서의 음악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다른 교과영역에 비해 비교적 드물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유아대상의 음악교육은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뿐만 아니라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유아교사가 음악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유아교육과 보육현장에서의 유아 음악교육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유아교사의 교육활동은 교사의 교육경력이나 교육수준 및 전문성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장현수, 김수영, 2014) 음악교육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음악교육은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유아교사의 음악 경험이나 노력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김영연, 2002, p. 21). 유아교사의 음악 지식이나 전문성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고(김지영, 김나림, 2017; 박보라, 2017; 박윤미, 2017; 이희진, 2010), 교육경력이 많을수록(고경나, 2008; 박주연, 2014; 박진성, 문혁준, 2006; 유미준, 2007; 유정희, 2013; 이희진, 2010) 유아교사는 유아교육과 보육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음악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과 보육현장에서의 음악교육은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음악교육에 대한 이전 경험(고경나, 2008; 박주연, 이민정, 2013; 박지현, 2009; 서영미, 2015; 윤관기, 2016; 유정희, 2013; 이희진, 2010; 전해원, 2016)과 지식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Lowe, Limmis와 Morris(2017)는 학생에게 질 높은 음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음악경험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편, 태도(attitude)란 한 개인의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 상태로서 Power(1990)는 음악에 대한 태도를 다양한 개인적 경험을 통해 형성한 음악에 대한 주관적이며 감정적인 판단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de l'Etoile(2001)은 유아교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는 음악교육의 중요성, 유아교사의 역할 및 가치, 음악활동 시의 편안함과 안정감 정도를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장은주, 2007 재인용). 이러한 정의와 설명에 따라 이민정(2002)은 음악에 대한 태도를 음악교육에서의 자신감, 편안함과 불편함, 필요성, 감정적 판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해정(2009)은 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를 호·불호차원에서 벗어나 인지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의 이원구조로 보는 견해를 지지하기도 하였다. 인지적 차원은 음악의 가치에 대한 기대를 통해 나타나는 관념

(idea)과 신념(belief)이다. 이는 음악을 통해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켜주며,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개인의 신념이다. 반면, 감정적 차원은 음악활동이나 교육 등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음악에 대한 동기나 정서(emotion)로서 음악에 대한 관심 정도며 음악이 주는 내재적인 정서반응이다(이수원 등, 1996). 두 차원 중 감정적 차원이 인지적 차원보다 더 지속적이고 중심적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으로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는 음악교육을 실시할 때 유아교사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대한 태도다. 유아교사가 음악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유아의 음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유아들의 음악교육을 위한 음악활동을 실시할 때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백지혜, 2010; 양지애, 이영애, 2011). 그러므로 유아교사는 음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유아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자극을 제공해줌으로써 유아가 음악을 보다 편안하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사는 현직교사교육과 새로운 음악경험을 통해 꾸준히 음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하다(Power, 1990). 그리고 유아교사는 유아들에게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통한 활동을 보다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유아들과 음악을 함께 나누고 음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정미경, 2016). 이러한 유아교사 자신의 음악에 대한 태도 및 이를 함양하려는 노력은 음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음악활동에 대한 교사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긍정적 태도라 할 수 있는 음악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아교사 자신의 풍부한 감성과 유아들을 배려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유아교사의 감성은 심미감과 감정적 차원에 따른 유아음악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인이다. 감성은 인간이 사회적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간단하고 특수한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반응이다(Gilovich, Keltner, Chen, & Nisbett, 2013, p. 197). 유아교사는 자신과 유아의 감성을 이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리더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목표달성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학습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다(Fleishman & Hunt, 1973; 김광남, 2014 재인용). 유아교사는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능력을 통해 정서적 측면이 강조되는 음악활동과 관련한 교수-학습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때 유아교사의 감성적 능력은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이신철, 2004) 이것이 감성리더십이다. 감성리더십은 풍부한 감성과 따뜻한 배려로 유아들을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서(김광남, 2014; 박성호, 2012; 신동한, 2009; Ruestow, 2008) 리더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식하고,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고,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목표를 이루게 하는 감성능력이다(Meyer & Salovey, 1995). 이러한 감성리더십은 감성적 측면을 강조하는 음악활동에서 유아교사가 원활한 교사-유아 관계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자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김종훈, 2016; 윤인애, 김지영, 주형철, 2013; Dulewicz & Higgs, 2000). Goleman, Boyatzis 그리고 McKee(2002)는 감성리더십을 개인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으로 대별하여 개인적 능력은 자기인식능력과 자기관리능력으로, 사회적 능력은 사회적 인식능력과 관

계 관리능력으로 구분하면서(박보식, 2017, p. 186, 재인용) 교육현장에서의 감성리더십의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과 보육현장에서의 음악교육과 관련하여 유아교사가 보다 효과적인 음악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감성리더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은 음악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기초가 되는 요인으로서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아음악교육과 관련하여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악에 대한 태도(김서향, 2005; 박진성, 문혁준, 2006; 백지혜, 2010; 이혜정, 2009), 음악교수효능감(김지영, 김나립, 2017; 박윤미, 2017; 박주연, 이민정, 2013; 이희진, 2010) 및 개인변인이나 음악 경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대체로 변인들 간에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유아교사의 감성리더십과 관련하여 음악에 대한 태도와 음악교수효능감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유아교사의 음악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실시하기 위해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와 음악교수효능감에 대해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이 각각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음악교수효능감은 유아교사가 지니고 있는 음악에 대한 태도가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음악교수효능감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도 음악에 대한 태도와 관계는 다수 진행되었기에 일차적으로 음악에 대한 태도를 먼저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후 유아교사의 감성리더십을 투입함으로써 음악교수효능감에 대한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의 영향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은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를 통해 유아의 음악성취에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뿐만 아니라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유아교육과 보육현장에서의 음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요인이며, 유아의 음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유아 음악교육은 지식 위주의 강의식 교수방법에서 벗어나 교사-유아 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김광남, 2014; 김일영, 2014). 이러한 점에서 유아교사의 사회적 관계성과 타인의 감성 존중 및 자기관리능력을 중시하는 감성리더십을 음악교수효능감과 음악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은 음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는 유아교사의 음악교육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으며 유아음악교육에서의 교사교육의 방향과 음악교육 교수방법이나 유아음악활동에 대한 교사 연수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현장에서의 음악교육을 위한 유아교사의 전문적 능력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줌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음악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교사 역량개발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에 따라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이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교육경력과 교육수준 및 음악경험에 따라 음악교수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 및 음악교수효능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셋째,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은 음악교수효능감에 대해 각각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도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교사 31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회수한 질문지중 누락된 문항이나 응답이 부실한 9명의 질문지를 제외한 301명의 질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여 최종 연구대상자는 301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빈도	%	빈도	%	
연령	교육 수준				
20-24세	35	11.6	고졸	18	6.0
25-29세	82	27.2	2·3년제 대졸	153	50.8
30-34세	51	16.9	4년제 대졸	102	33.9
35-39세	44	14.6	대학원졸 이상	28	9.3
40세 이상	89	29.6	계	301	100
계	301	100			
교육 경력	근무기관				
5년 미만	133	44.2	유치원	137	45.5
5-10년 미만	90	29.9	어린이집	164	54.5
10년 이상	78	25.9	계	301	100
계	301	100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은 어린이집 교사(54.5%)가 유치원교사(45.5%)보다 약간 더 많았고, 유아교사의 연령은 40세 이상(29.6%), 25-29세(27.2%), 30-34세(16.9%)의 순이었다. 유아교사의 교육경력은 5년 미만(44.2%)이, 교육수준은 2·3년제 대졸(50.8%)이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1) 음악에 대한 태도 척도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척도는 김서향(2005)과 이해정(2009)이 사용한 음악에 대한 태도 척도(22문항)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인지적 차원 10문항, 감정적 차원 8문항의 총 18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지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의 2개 하위요인으로 산출되었으며, 인지적 차원의 1문항과 감정적 차원의 3문항의 요인적합치가 .30이하로 낮아 삭제하였다. 음악에 대한 태도 척도의 인지적 차원은 음악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사실적 지식을 이성적으로 지각하려는 태도이고, 감정적 차원은 음악에 대한 개인적 정서를 감정적으로 지각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으로 응답하는 5점 리커트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차원의 음악에 대한 태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를 위해 Cronbach' α 를 산출한 결과, 인지적 차원은 .92, 감정적 차원은 .90이고, 전체 문항은 .91이었다. Cronbach' α 에 의한 신뢰도 수준은 .90 이상인 경우는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본 척도의 신뢰도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다.

2) 감성리더십 척도

유아교사의 감성리더십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석기(2010)와 구자영(2012)이 사용한 감성리더십 척도(20문항)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감성리더십 척도는 원래 5문항씩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증 결과, 4개 하위요인에서 1문항씩 요인적합치 수준이 .30이하로 낮아 삭제하여 4문항씩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4개 하위요인은 자기인식능력, 자기관리능력, 사회적 인식능력, 관계관리능력이다. 자기인식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고, 자기관리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헤아리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다. 사회적 인식능력은 감정이입의 능력으로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이고, 관계관리능력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다. 감성리더십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으로 응답하는 5점 리커트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감성리더십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를 위해 Cronbach' α 를 산출한 결과, 자기인식능력 .80, 자기관리능력 .81, 사회적 인식능력 .73, 관계관리능력 .79이고, 전체 문항은 .79이었다. Cronbach' α 에 의한 신뢰도 수준은 .70 이상인 경우는 만족스런 수준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척도의 신뢰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3) 음악교수효능감 척도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방은영과 박찬욱(2005)이 사용한 2개 하위요인의 21문항으로 구성된 음악교수효능감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음악교수능력에 대한 효능감의 14문항 중 6문항의 요인적재치가 낮아 이를 삭제하여 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음악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7문항이 모두 .30이상의 요인적재치를 산출함으로써 2개 하위요인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음악교수능력에 대한 효능감은 교사 자신이 음악활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효능감이며, 음악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유아교사 자신의 음악활동이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으로 응답하는 5점 리커트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음악교수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를 위해 Cronbach' α 를 산출한 결과, 음악교수능력에 대한 효능감과 음악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 및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가 각각 .89이었다. Cronbach' α 에 의한 신뢰도 수준은 .80 이상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본 척도의 신뢰도는 우수한 수준이었다.

4)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음악경험 질문지

유아교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교사의 개인변인으로 연령, 근무기관, 교육경력, 교육수준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유아교사의 음악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음악연수경험 유무와 현재 음악교육의 유무, 유아기에 가정에서 부모가 음악을 들려주었는지의 여부 등을 묻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음악에 대한 태도 척도, 감성리더십 척도와 음악교수효능감 척도, 음악경험 질문지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유아교육과 교수 3인에게 의뢰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유아교육과 보육에 적합하지 않거나 내용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된 문항이 다수 발견되어 해당되는 문항은 연구 도구별로 수정·보완하였다. 질문지를 실시하기 위해 편의표본 추출방법으로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57개 기관을 표집하여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원장 및 원감을 포함하여 유아교사 310명을 표집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유아교사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획득하고, 연구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질문지를 전달하였다. 응답한 질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거나 개별 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SPSS 18)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사용한 척도에 대한 타당도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첫째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 검증,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교사의 교육경력, 교육수준과 음악경험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의 차이

유아교사의 교육경력과 교육수준 및 음악경험에 따라 음악교수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증으로 *Scheffé*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유아교사의 교육경력과 교육수준 및 음악경험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에서의 차이 검증 결과

구 분	n	음악교수 능력에 대한 효능감		음악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감		음악교수 효능감 총점	
		M	SD	M	SD	M	SD
교육경력							
5년 미만 _a	133	3.09	.69	3.73	.64	3.41	.57
5-10년 미만 _b	90	3.15	.71	3.77	.63	3.46	.57
10년 이상 _c	78	3.19	.65	3.96	.53	3.57	.46
<i>F</i>		.57		3.60*		2.23	
<i>Scheffé</i>				a < c			
교육수준							
고졸 _a	18	2.61	.97	3.71	.64	3.16	.66
2·3년제 대졸 _b	153	3.12	.61	3.68	.65	3.40	.54
4년제 대졸 _c	102	3.19	.72	3.92	.53	3.55	.54
대학원졸 이상 _d	28	3.34	.58	4.07	.50	3.70	.42
<i>F</i>		4.74**		5.18**		5.35***	
<i>Scheffé</i>		a < c, d		b < c, d		a < c, d	
음악연수							
유	156	3.21	.69	3.90	.60	3.54	.55
무	145	3.04	.67	3.69	.61	3.35	.54
<i>t</i>		2.20*		2.99**		3.01**	
현재 음악교육							
유	52	4.01	.66	3.34	.70	3.66	.60
무	249	3.76	.60	3.09	.67	3.40	.53
<i>t</i>		2.45*		2.75**		3.06**	
어렸을 때 부모가 음악을 들려줌							
유	222	3.24	.63	3.82	.60	3.52	.53
무	79	2.83	.75	3.73	.64	3.25	.57
<i>t</i>		4.73***		1.28		3.76***	

p* < .05, *p* < .01, ****p* < .001.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첫째, 유아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라서는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음악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한 *Scheffé* 검증 결과, 5년 미만인 경우와 10년 이상인 경우에서 차이가 있어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5년 미만의 교육경력을 가진 유아교사에 비해 더 높

았다. 둘째, 유아교사의 교육수준에 따라 음악교수효능감 총점과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의한 차이가 산출된 결과에 대해 *Scheffé* 검증 결과, 음악교수효능감 총점과 하위요인 중 음악교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은 4년제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와 고졸 간에서, 하위요인 중 음악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4년제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와 2·3년제 대졸 간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음악교수효능감 총점과 하위요인 중 음악교수 능력에 대한 효능감은 4년제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가 고졸에 비해, 하위요인 중 음악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4년제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가 2·3년제 대졸인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음악교수효능감 수준을 나타냈다. 셋째, 음악연수 경험과 현재 음악교육을 받고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음악교수효능감 총점과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음악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고, 현재 음악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어렸을 때 부모가 음악을 들려주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음악교수효능감 총점과 하위요인 중 음악교수능력에 대한 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어렸을 때 부모가 음악을 들려준 유아교사의 경우에 유아교수효능감 수준이 더 높았다.

2.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 및 음악교수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 및 음악교수효능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 및 음악교수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결과

변수	음악에 대한 태도			감성리더십				음악교수효능감			
	인지적 차원	감정적 차원	총점	자기 인식 능력	자기 관리 능력	사회적 인식 능력	관계 관리 능력	총점	음악교수 능력에 대한 효능감	음악교수 결과에 대한 기대감	총점
1	1										
2	.42***	1									
3	.84**	.84***	1								
4	.50***	.17**	.40***	1							
5	.41***	.26***	.40***	.40***	1						
6	.48***	.20**	.40***	.56***	.40***	1					
7	.39***	.24***	.37***	.55***	.50***	.55***	1				
8	.56***	.28***	.50***	.78***	.75***	.795***	.83***	1			
9	.39***	.53***	.55***	.33***	.39***	.32***	.33***	.44***	1		
10	.61***	.36***	.57***	.49***	.34***	.46***	.39***	.53***	.43***	1	
11	.57***	.54***	.66***	.47***	.43***	.45***	.42***	.56***	.88***	.80***	1

** $p < .01$, *** $p < .001$.

주. 1. 인지적 차원 2. 감정적 차원 3. 음악에 대한 태도 총점 4. 자기인식능력 5. 자기관리능력 6. 사회적 인식능력 7. 관계관리능력 8. 감성리더십 총점 9. 음악교수능력에 대한 효능감 10. 음악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 11. 음악교수효능감 총점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 및 음악교수효능감의 총점과 하위요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

감과 음악에 대한 태도와 관계는 $r = .17 \sim .88$ 의 정적상관관계가, 감성리더십과는 $r = .32 \sim .88$ 의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다.

3.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이 음악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이 음악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표 6과 같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Durbin-Watson 계수가 1.81~1.84로 2.0에 가까워 인접한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었고, 분산팽창계수(VIF)도 모두 2.0 이하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은 유아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음악관련 경험을 통제 변수로 설정한 후, 1단계로 음악에 대한 태도를, 2단계로 감성리더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 총점에 대한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의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 총점에 미치는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의 영향

독립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상수)		39.002***		9.68***		1.79	
통제 변수	교육경력	.12	2.06	-.00	-.09	-.03	-.77
	교육수준 ¹⁾	.12	2.13*	.02	.49	.00	.04
	음악연수 ²⁾	.10	1.82	.03	.81	.05	1.34
	현재음악교육 ³⁾	.12	2.26*	.04	1.01	.04	1.00
	어렸을 때 부모가 음악을 들려줌 ⁴⁾	.21	3.81***	.08	1.91	.095	2.24*
음악에 대한 태도	인지적 차원			.42	8.72***	.23	4.48***
	감정적 차원			.31	6.27***	.30	6.31***
감성 리더십	자기인식능력					.15	2.91**
	자기관리능력					.12	2.56*
	사회적인식능력					.12	2.32*
	관계관리능력					.03	.58
<i>F</i>		8.46***		35.11***		30.31***	
<i>R</i>		.35		.68		.73	
<i>R</i> ²		.13		.46		.54	
<i>Adj. R</i> ²		.11		.44		.52	

* $p < .05$, ** $p < .01$, *** $p < .001$.

1) 교육수준 평균을 기준으로 4년제 대졸이상=1, 4년제 대졸미만=0, 2) 3) 4) 유=1, 무=0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 총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의 *F* 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01$)이었다. 각각의 모형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통제변수에 대한 것은 11%, 음악에 대한 태도를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은 44%, 마지막으로 감정 리더십을 투입한 경우의 설명력은 52%이었다. 즉,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 총점에 대해 음악에 대한 태도의 설명력은 33%로 가장 컸고, 감성리더십은 8%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 총점에 대한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의 하위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음악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차원은 $\beta = .42(p < .001)$ 이고, 감정적 차원은 $\beta = .31(p < .001)$ 로 하위요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성리더십은 관계관리능력을 제외한 자기인식능력($\beta = .15, p < .01$), 자기관리능력($\beta = .12, p < .05$), 사회적인식능력($\beta = .12, p < .0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에 대한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표 6과 같다.

표 5.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음악교수능력에 대한 효능감에 미치는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 리더십의 영향

독립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β	<i>t</i>	β	<i>t</i>	β	<i>t</i>
(상수)		26.90***		9.68***		1.87
통제변수						
교육경력	.06	1.14	-.03	-.59	-.06	-1.33
교육수준 ¹⁾	.05	.99	-.01	-.32	-.02	-.57
음악연수 ²⁾	.08	1.52	.02	.44	.04	.88
현재음악교육 ³⁾	.09	1.77	.00	.08	.00	.10
어렸을 때 부모가 음악을 들려줌 ⁴⁾	.26	4.72***	.14	2.86**	.15	3.20**
음악에 대한 태도						
인지적 차원			.20	3.76***	.04	.69
감정적 차원			.43	7.73***	.40	7.52***
감성 리더십						
자기인식능력					.09	1.58
자기관리능력					.18	3.42**
사회적인식능력					.09	1.50
관계관리능력					.02	.36
<i>F</i>	7.04***		22.47***		18.73***	
<i>R</i>	.33		.59		.65	
<i>R</i> ²	.11		.35		.42	
<i>Adj. R</i> ²	.09		.33		.39	

* $p < .05$, ** $p < .01$, *** $p < .001$.

1)교육수준 평균을 기준으로 4년제 대졸이상=1, 4년제 대졸미만=0, 2)3)4) 유=1, 무=0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음악교수능력에 대한 효능감에 미치는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두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01$)에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사의 음악교수능력에 대한 효능감은 통제변수에 대한 것은 9%, 음악에 대한 태도를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은 33%, 감성리더십을 추가로 투입한 경우의 설명력은 39%이었다. 즉, 유아교사의 음악교수능력에 대한 효능감에

대해 음악에 대한 태도의 설명력은 24%이고, 감성리더십은 6%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음악교수능력에 대한 효능감도 음악에 대한 태도의 영향이 가장 컸는데 이 중 감정적 차원($\beta = .43, p < .001$)이 인지적 차원($\beta = .20, p < .001$)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 한편, 감성리더십은 하위요인 중 자기관리능력($\beta = .18, p < .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6.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음악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의 영향

독립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β	<i>t</i>	β	<i>t</i>	β	<i>t</i>
(상수)		38.87***		9.34***		2.46*
교육경력	.14	2.37*	.02	.53	.01	.26
교육수준 ¹⁾	.15	2.64**	.05	1.22	.03	.73
통제 음악연수 ²⁾	.09	1.52	.04	.86	.05	1.20
변수 현재음악교육 ³⁾	.11	2.01*	.07	1.61	.07	1.54
어렸을 때 부모가 음악을 들려줌 ⁴⁾	.08	1.48	-.00	-.06	.00	.01
음악에 대한 태도 인지적 차원			.53	10.45**	.38	6.62***
감정적 차원			.09	1.68	.09	1.74
감성 자기인식능력					.17	2.97**
리더십 자기관리능력					.01	.27
사회적인식능력					.12	2.09*
관계관리능력					.03	.54
<i>F</i>	6.51***		27.39***		21.81***	
<i>R</i>	.32		.63		.67	
<i>R</i> ²	.10		.40		.45	
<i>Adj. R</i> ²	.08		.38		.43	

* $p < .05$, ** $p < .01$, *** $p < .001$.

1)교육수준 평균을 기준으로 4년제 대졸이상=1, 4년제 대졸미만=0, 2)3)4) 유=1, 무=0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음악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두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 < .001$)에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교사의 음악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통제변수에 대한 것은 8%, 음악에 대한 태도를 투입했을 때의 설명력은 38%, 감성리더십을 추가로 투입한 경우의 설명력은 43%이었다. 즉, 유아교사의 음악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 음악에 대한 태도의 설명력은 30%이고, 감성리더십은 5%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음악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음악에 대한 태도의 영향이 가장 컸는데 이 중 인지적 차원($\beta = .53, p < .0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성리더십은 하위요인 중 자기인식능력($\beta = .17, p < .01$)과 사회적인식능력($\beta = .12, p < .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에 대해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 및 유아교사의 교육경력과 교육수준 및 음악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산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 총점과 하위요인 중 음악교수능력에 대한 효능감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음악연수 경험이 있고, 현재도 음악교육을 받고 있으며, 어렸을 때 부모가 음악을 들려준 경험이 있는 경우에 더 높았다. 한편,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음악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음악연수 경험이 있고, 현재도 음악교육을 받고 있으며, 어렸을 때 부모가 음악을 들려준 경험이 있는 경우에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음악교수효능감이 더 높았다는 유미준(2007), 유정희(2013), 이희진(2010) 등의 연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음악교수효능감이 더 높았다는 박윤미(2017), 박진성과 문혁준(2006), 유정희(2013), 이희진(2010) 등의 연구와 일관되는 결과이다. 또한 음악 연수를 받았고, 현재도 음악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 수준이 더 높았다는 박주연과 이민정(2015)의 연구결과, 학령기 이전에 가정에서 음악을 자주 경험했던 경우(유미준, 2007)와 풍부한 음악적 경험이 제공된 가정에서 자란 경우(유미준, 2007; de Vries, 2017) 등에서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들과도 일관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유아교사가 음악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오랜 교육경력과 높은 교육수준을 지닐수록 음악교수효능감 수준이 높아 자신감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수업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음악교수 시 유아의 학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 더 효과적인 음악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아교사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획득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보다 확실한 교육신념으로 유아들을 지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 장현수와 김수영(2014)의 논의로도 지지된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사가 보다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유아들과 음악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음악교수효능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의 다양한 음악교육경험과 직전교육의 기회가 보다 풍부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유아교사가 심리적 부담 없이 유아들과 원활하고 편안하게 음악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측면에서 음악관련 연수 등과 같은 음악교육을 꾸준히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유아교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과 자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음악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둘째,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과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 간에는 높은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와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박진성과 문혁준(2006)의 연구결과,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일수록 음악교육의 능력에 대한 효능감과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는 신금호(2013)의 연구결과, 교사가 유아교실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지원하는 감성리더십이 교수효능감을 높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교수 결과를 경험하게 한다는 권정해(2014)

의 연구결과 등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 스스로 음악교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떨치고, 음악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 신념을 지닐수록 음악교수효능감 수준이 더 높아서 유아대상의 음악교육을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평소 유아교사가 음악을 이해하고 이를 더 풍부하게 표현할수록, 자신과 유아에 대한 감성을 이해하고 유아와의 공감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유아교사 자신의 음악적 능력에 대한 이해수준과 자기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즉 감성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음악교수효능감 수준도 높아 보다 효과적인 음악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음악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차원의 태도 함양뿐만 아니라 감성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나 대학의 직전교육에서 음악에 대한 태도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된 유아교사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 총점과 하위요인에 대해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악에 대한 태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 총점은 인지적 차원과 감정적 차원의 음악에 대한 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감성리더십에 비해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음악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사실적 지식을 이성적으로 지각하려는 태도와 음악에 대한 개인적 정서를 감정적으로 지각하려는 태도를 발달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음악교수능력에 대한 효능감은 감정적 차원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자기관리능력의 감성리더십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사 자신이 음악에 대한 개인적 정서를 감정적으로 지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헤아리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지니는 경우에 교사 자신이 음악활동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짐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자신 있게 유아들과 음악교육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음악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인지적 차원의 음악에 대한 태도의 설명력이 가장 컸는데 이는 교사가 음악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사실적 지식을 이성적으로 지각하려는 태도를 지닐 경우 교사 자신의 음악활동이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더 높임으로써 음악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감성리더십 중에서는 자기인식능력과 사회적 인식 능력의 영향이 음악교수결과에 대한 기대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을 지닌 경우에 음악교수효능감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유아들과의 음악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악교수효능감에 있어서 예비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음악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는 신금호(2013)의 연구결과와 일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태도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감성리더십도 어느 정

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지적 차원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지니는 것이 음악교수효능감을 높임으로써 유아들과 음악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유아교사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 음악활동 시 발생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기인식과 자기관리능력의 감성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아교사들이 다양한 음악교육 연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음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직전 교육의 음악교육 시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음악 감상하기, 악기 다루기, 노래 부르기, 합주하기, 음악극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의 음악교육 활동을 경험해보게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음악교수방법 및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방법을 획득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유아교사 대상의 음악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풍부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유아교사 대상의 음악에 대한 태도, 음악교수효능감 등과 같은 관련 척도가 음악교수효능감과 음악에 대한 태도 등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음악교수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가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달라 음악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이나 횟수 및 이에 대한 교사의 태도와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척도만을 가지고 유아교사들의 음악교수효능감과 음악에 대한 태도 등을 알아보는데 국한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음악활동을 위한 교사의 자세와 신념을 알아보는데 있어 제한적인 면이 있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음악교수효능감과 관련한 유아교사의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감성리더십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설명력만을 살펴보는데 국한하여 연구결과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과 관련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유아교사 대상의 음악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분리하여 실제 유아교육과 보육현장에서의 유아교사 대상의 음악교수효능감 수준과 음악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역할 및 신념 등을 관찰이나 면접 등의 보다 질적인 차원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출한 결과를 구조방정식 등의 다양한 통계방법을 적용하여 음악에 대한 태도와 음악교수효능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요인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많이 연구되지 않은 유아음악교육과 관련한 음악교수효능감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사의 자질로서 감성리더십과 음악에 대한 태도와와의 관계를 규명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음악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전교육에서 유아교사를 위한 음악에 대한 태도의 함양과 음악교육을 위한 교사연수의 필요성과 다양한 음악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고경나 (2008). 유치원 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과 음악교육 실체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영 (2012).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교사효능감과의 관계.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남 (2014). 유아음악교육에서 교수의 감성리더십이 학습몰입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4**(5), 167-185. doi:10.18023/kjece.2014.34.5.008
- 김서향 (2005). 음악에 대한 태도척도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연 (2002). **유아음악교육론**. 서울: 학지사.
- 김일영 (2014). 음악과 토의·토론 수업모형 및 지도방안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4), 455-478.
- 김종훈 (2016). 유아교육기관 교실의 질, 교사의 교수효능감, 교수상호작용이 유아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영, 김나림 (2017).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과 음악활동 간의 관계. **아동과 권리**, **21**(1), 61-82. doi:10.21459/kccr.2017.21.1.61
- 권정해 (2014).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원장의 감성리더십, 교사효능감, 직무만족, 조직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보라 (2017). 보육교사 배경변인에 따른 음악교수내용지식과 음악교수효능감 인식.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식 (2017). **리더십: 이론과 실제**. 서울: 대영문화사.
- 박성호 (2012).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감성리더십과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미 (2017).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내용지식 및 음악교수 효능감 수준에 따른 유아의 음악 능력.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연 (2014). 유아교사의 음악활동에 대한 지식, 인식 및 교수효능감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연, 이민정 (2013). 유아교사의 음악활동에 대한 지식, 인식 및 교수효능감 관계 연구. **유아교육연구**, **33**(6), 5-20. doi:10.18023/kjece.2013.33.6.001
- 박주연, 이민정 (2015). 유아음악활동에 대한 교사의 지식에 따른 인식과 교수효능감 차이. **유아교육연구**, **35**(5), 213-227. doi:10.18023/kjece.2015.35.5.010
- 박지현 (2009).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음악경험, 교사기대, 부모지지 및 음악환경의 역할 분석. **음악교육공학**, **8**, 153-167.
- 박진성, 문혁준 (2006). 유아 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 음악교수의 실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9), 9-19.
- 방은영 (2008). 유아 음악성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적용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 논문.

- 방은영, 박찬옥 (2005). 유치원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에 관한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9**(4), 5-30.
- 백지혜 (2010).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불안 정도에 따른 음악적 태도 및 교수 학습능력 고찰. **열린유아교육연구**, **15**(2), 149-173.
- 서영미 (2015). 유아교사의 음악활동에 대한 인식이 음악활동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승윤희 (2015). 학습동기이론에 기반한 음악 수업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7), 357-382.
- 신금호 (2013). 예비유아교사의 음악교수 불안 및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와 음악교수 효능감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1), 145-163.
- 신동한 (2009). 학교장의 감성리더십과 학교조직문화와 학교조직효과성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지애, 이영애 (2011). 유치원 교육활동 지도서의 음악관련 활동 분석: 음악적 개념, 행동, 태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1**(1), 203-226. doi:10.18023/kjece.2011.31.1.010
- 유미준 (2007).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희 (2013). 유치원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과 유아의 음악적 성향의 관계.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관기 (2016). 초등예비교사의 음악 선(先) 경험과 음악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연구. **음악교육연구**, **45**(4), 115-136.
- 윤인애, 김지영, 주형철 (2013). 교양댄스수업에서의 학생들이 지각한 교수의 감성지능,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신뢰 및 참여지속의사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2**(4), 293-305.
- 이민정 (2002). 음악활동에 대한 교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2), 159-187.
- 이수원, 장현갑, 안신호, 이만영, 김경린, 정찬섭 등 (1996). **심리학: 인간의 이해**. 서울: 정민사.
- 이신철 (2004). 감성지능과 성과의 관계 연구: 리더(Leader)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석, 이경민, 한석실 (2001). 유아교사 효능감 개념 및 관련 변인 고찰. **미래유아교육학회지**, **8**(2), 181-203.
- 이혜정 (2009). 음악회를 활용한 음악에 대한 태도 변화 연구: 수업 중 초등학교 학생들의 작은 음악회를 활용하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진 (2010). 유치원 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과 음악활동 실제: 경력, 학력 및 연수 경험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은주 (2007). 현직교사를 위한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현수, 김수영 (2014). 유아체육교사의 체육교수효능감과 수업지식의 관계.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1), 379-395.

- 전혜원 (2016). 중등 음악교사의 음악교육 경험에 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경 (2016). 예비유아교사의 음악활동에 관한 교수효능감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석기 (2010). 교장의 감성리더십과 학교 조직문화 및 교사 효능감의 간의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인주, 김은정 (2015). 교사의 반성적 사고 수준과 음악교육에 대한 지식,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 및 음악교수효능감 간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9**(6), 177-197.
- de l'Etoile, S. K. (2001). An in-service training program in music for child-care personal working with infants and toddler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1), 6-20.
- de Vries, P. (2017). Self-efficacy and music teaching: Five narra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 the Arts*, *18*(4), 1-23.
- Dulewicz, V., & Higgs, M. (2000). Emotional intelligence: A review and evaluation study.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5*(4), 341-372. doi:10.1108/02683940010330993
- Fleishman, E. A., & Hunt, J. G. (1973). Twenty years of consideration and structure (pp. 13-26). *Curr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Leadership: A Centennial Event Symposium held a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at Carbondale, IL*.
- Gibson, S., & Dembo, M. H. (1984).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4), 569-582. doi:10.1037/0022-0663.76.4.569
- Gilovich, T., Keltner, D., Chen, S., & Nisbett, R. E. (2013). *Social psychology (3rd e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Goleman, D., Boyatzis, R., & McKee, A. (2002). *Primal leadership: Realizing the power of emotional intelligenc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Lowe, G. M., Limmis, G. W., & Morris, J. (2017). Pre-service primary teachers' experiences and self-efficacy to teach music: Are they ready? *Issues in Educational Research*, *27*(2), 314-329.
- Mayer, J. D., & Salovey, P. (1995).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construction and regulation of feeling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4*(3), 197-208. doi:10.1016/S0962-1849(05)80058-7
- Murphy, M. K., & Browa, T. S. (1986). A comparison of preferences for instructional objective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4*(2), 134-139. doi:10.2307/3344741
- Power, K. M. (1990). A cross-cultural study of mothers' and teachers' attitudes toward music education in USA and Jap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HI.
- Ruestow, J. A. (2008). The effect of a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on followe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 exploratory mixed methodology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public human servi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pella University, Minneapolis,

MN.

Sehriban, K. (2013). An investigation of music teaching self-efficacy levels of prospective preschool teachers.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8(12), 897-900.

논문투고: 19.02.12
수정원고접수: 19.04.01
최종게재결정: 19.04.16